"제2의 마부노호 만들어선 안돼"

피랍선원 석방운동 앞장서 온 해상노련 쟁의대책 공원범 국장

지난 10월 14일 부산롯데백화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확성기를 들고 있는 공원범 국장, 한석호 선장의 부인 김경심 씨, 해상노련 박희성 위원장, 해상노련 안대선 조직본부장.

지난 5월 15일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북동쪽 210마일 해상에서 무장 해적들에게 납치됐던 마부노호 선원 24명이 11월 16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5월 10일 케냐 몸바사항에서 출항한지 190일만이다.

정부의 외면 속에 선원들의 무사 귀국을 위한 성명서 발표, 성금모금 및 외교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사람이 있다. 바로 전국해상산업노동협동조합 해군조직본부(이하 해상노련) 쟁의대책 공원범 국장이다. 지난 11월 10일 범어사(주지 대성)에서 그를 만났다. 피랍 선원 가족을 위로하고 석방을 위한 성금 모금과 재발방지를 기원하는 법회에서다.

"12일 선원가족들과 함께 마부노호가 입항하는 예멘 아덴항으로 출국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모든 것이 무사히 해결돼 기쁩니다."

그는 선원 가족들과 규명활동을 펼치며 잠도 제대로 못자 마음고생을 했다고 한다. 석방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뻤다는 공 국장은 멀고 먼 예멘으로 가는 길이 행복의 길이라며 즐거워했다.

선원 가족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듯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설명해주는 공 국장이다.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져 있는 공 국장은 그동안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지 않고 국내에서 활동하며 해상노련과 함께 피랍가족들을 돕는데 앞장서왔다.

"정부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코웃음을 치고 유서까지 쓰면서 전쟁지역에 간 사람들에게는 정부 특사에 국가 정보원장까지 현지에 날아가는 등 성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아프간 피랍 사태와는 다르게 정부는 미온적으로 이일을 대처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언론에 공개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주기를 선원 가족들에게 요구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지요. 종교, 직업, 지역에 상관없이 생명은 모두 소중한 것이니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분들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며 여러분이 협상을 해결해 준 당사자들입니다."

석방된 선원들을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는 공 국장은 앞으로 "선원들과 선원가족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한편 해상노련은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의 무분별한 감척사업을 규탄할 예정이다. 피랍된 마부노호는 정부가 감척사업의 일환으로 매각한 선박을 다시 해외 한국인 어선주에게 저렴한 값으로 되팔았던 것이다.

감척으로 인해 실직한 어선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위해 해당 선박에 승선했다 이러한 낭패를 당했다. 해상노련 관계자는 "무분별한 감척사업은 제2, 제3의 마부노호를 만들 것이다"고 우려했다.

하성미 기자

자비의 마음으로 촛불을 밝혔던 지난해 생명나눔 콘서트 현장.

100원으로 전하는 이웃사랑

부산 생명나눔, 11월 23일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다. 추운 날씨만큼 삶이 힘든 이웃을 돕기 위해 연말이면 온정의 손길도 늘어난다. 하지만 높은 기부금액을 보고 마음을 접는 사람도 많다. 이제 주머니 속 100원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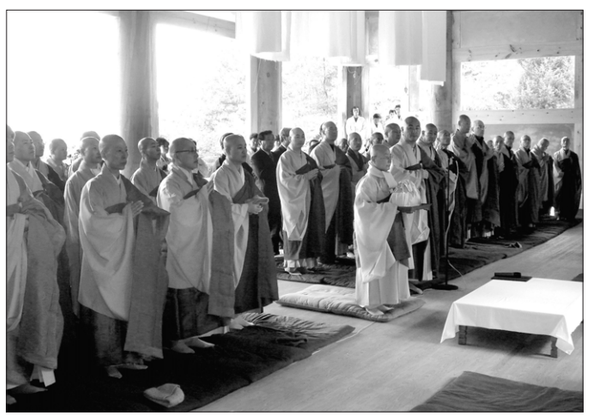
'100원을 모아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자'는 희망 콘서트가 개최된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2007 생명나눔의 날을 맞아 11월 23일 오후 3시 국제신문 4층 대강당에서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를 마련한 것이다.

생명나눔 편지 및 난치병 환우 사연 소개가 진행될 1부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호소하고 100원의 작은 정성이 모여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2부 콘서트에서는 불자가수 강혜윤, 순야타의 연꽃의 소리, 해동중학교 비보이팀, 국악, 정법 스님의 수화, 향상선원 어린이 사물놀이, 청공중창단이 공연한다.

이날 모인 성금은 서희진 어린이에게 전달된다. 초등학교 6학년인 서희진 어린이는 자가 면역성 질환인 '전신성 홍반성 낭창'을 앓고 있다.

희진이의 아버지는 간암과 위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당뇨로 인해 직장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051)853-0429

하성미 기자



음성 한마음 광명선원의 대웅전 상량·우주탑 봉안법회 모습.

대웅전 상량·우주탑 봉안법회 봉행

음성 한마음 광명선원서

음성 한마음 광명선원(지원장 청백)은 대웅전 상량과 우주탑 봉안법회를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봉행했다.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원 스님과 각 지원장 스님 신도 등 3000여 명이 동참했다.

대웅전 대들보에는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 만법을 들이고 내는데 걸림이 없어라. 아미타 한도량"이라는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의 법문이 적혔다. 2003년부터 불사가 시작된 광명선원 대웅전은 2300㎡(71평) 크기로 외 9포 내 11포의 팔작지붕이며 국내산 금강송 등을 사용해 건립하고 있다.

법회에서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이렇게 훌륭한 대웅전을 건립하는데 뜻을 모아 준 불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정진 또 정진해서 나 아닌 나를 알아서 자성 청정한 삶을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청주 용화사 용화봉사단 지체 장애우들과 나들이

청주 용화사 용화봉사단(단장 김대근)이 지체장애 1급 장애인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는 성보나의 집(원장 알마수녀) 가족들과 함께 전주 한옥마을, 덕진공원, 동물원 나들이를 11월 11일 다녀왔다.

현대건설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신축현장(소장 윤재령)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나들이에는 정신지체장애 1급 여성 35명과 선생님 등 70여명이 함께 했다.

단장 김대근 포교사는 "1주일 전부터 장소를 물색하고 차량준비 등 행사 준비에 흘린 땀들이 환우들의 함박웃음으로 깨끗이 씻겨 진듯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봉사의 기쁨이 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로 용화봉사단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며 자비희사 정신으로 봉사단이 필요한 곳이면 종교를 가리지 않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시켰다. 혜철 충청지사장

'비로자나佛' 불 나도 안심!

화재·재난 대비 안전설비 갖춘 대비로전에 보관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에서 2005년 발견된 국내 최고(最古) 동형쌍불 목조 비로자나불상(경남지정 유형문화재 제41호)이 각종 재난과 화재를 이길 수 있는 최첨단 안전설비를 갖춘 대비로전(大毘盧殿)에 모셔진다.

이번에 선보이는 대비로전의 첨단설비는 화재에 대한 열감지기, 지진에 대비한 진동 측정기 등이다. 첨단 안정장치 구축으로 해인사 비로자나 부처님은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지하 6m 깊이의 별실로 자동 이동 된다.

출입구에는 뜨거운 열이나 중량에도 견딜 수 있도록 2중, 3중의 자동 차단장치가 덧붙여졌다. 보수공사나 필요시 수동조작도 가능하다.

"불이 나면 사라지는 문화유산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컸다"는 주지 현응 스님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일할 이 첨단 공법들은 앞으로 문화재 보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비로전 낙성법회는 11월 24일 오후 1시 해인사 대비로전에서 봉행된다. 이번 낙성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도림 법전 스님,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 유홍준 문화재청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55)934-3111

하성미 기자

옥천어린이집 종교체험 행사

옥천어린이집(원장 이창희) 어린이들이 11월 13일 옥천 대성사(주지 혜좀)를 방문했다.

지역사회 바로알기 종교 체험행사의 일환으로 불교 바로알기 체험을 진행한 것이다. 지역 종교 탐방을 통해 종교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어린이들은 대성사를 방문해 부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합장하기 절하기 등 불교의 예법을 배웠다. 혜철 충청지사장

백담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발우공양을 체험하는 미국 언론인들.

美 언론인 백담사 템플스테이

미국의 주요 언론사 간부들이 11월 10~11일 인제 백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USA 투데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볼티모어 선, 미국 국영 라디오 등 미국의 주요 언론사 부장급 이상의 언론인 20여 명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이 운영하는 '국제보도 프로젝트(IPR)'에 참가하기 위해 4일 입국했다. 이들은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국내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는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

참가자들은 백담사에서 다도와 발우공양 · 새벽예불 등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했고, 백담사 포교국장 도명 스님으로부터 '한국불교의 이해' 강의를 들으며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후원 : (국민)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 창종 20주년 기념법회

봉행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 제6대 총무원장 혜염당 혜봉큰스님 취임법회

종단의 안정과 화합, 축하와 격려 속에서 제6대 총무원이 새로운 출범을 합니다.
뜻 깊은 자리에 수희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불기2551년 11월 30일(음. 10. 21) 금요일 낮 12시
■ 장소 : 하림각 다이아몬드홀
■ 문의 :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
TEL. (041)734-5371~2, H·P 011-859-2707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취임법회 봉행위원장 회광 · 집행위원장 성철 청혜 합장